

닭 전염성기관지염(IB)과 뉴캐슬병(ND)을 한 번에 잡는다!

(주)고려비엔피,

달구방 BN<sup>++</sup> (비엔 투플러스) 생백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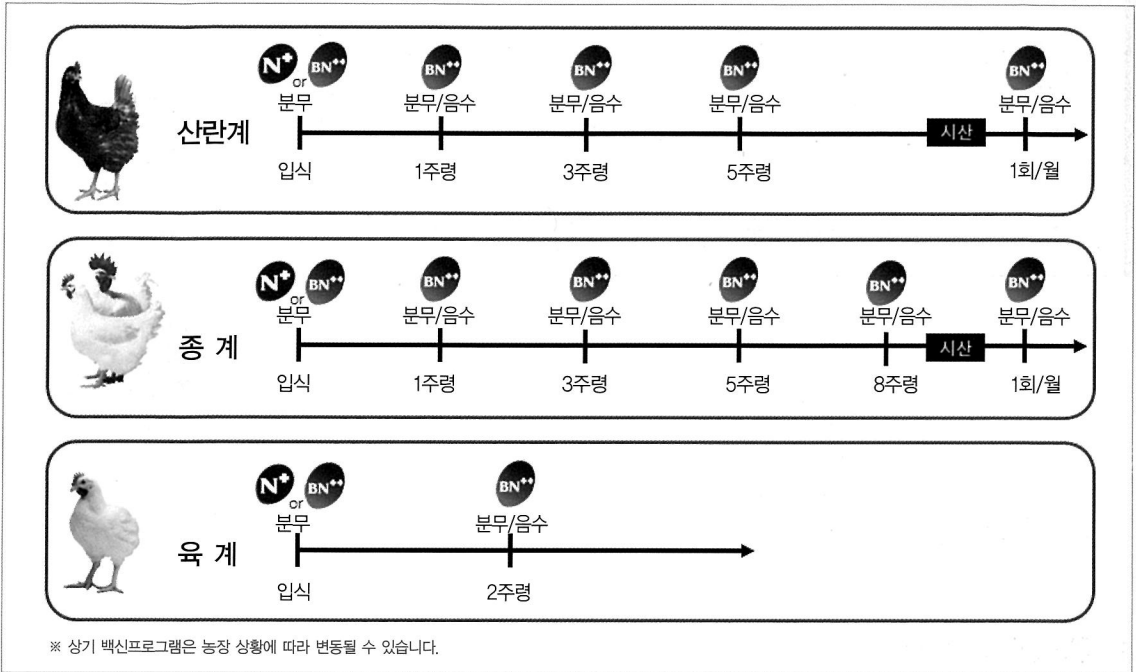
닭의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인 닭 전염성기관지염(IB)과 뉴캐슬병(ND)은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어 닭의 폐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수란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양계산업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. 그러나 이 두가지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은 쉽게 근절될 수가 없어서 농가에서 많은 예방대책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.



달구방 BN++(비엔투플러스)

(주)고려비엔피는 양계산업의 가장 큰 적인 IB와 ND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백신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그 결과로 지난 2010년 달구방 B<sup>+</sup>생백신을, 2012년 달구방 N<sup>+</sup> 생백신을 출시하여 양계농가들에 선풍적인 반향을 이끌어낸 바 있다.

더 나아가 현재 국내에 유행하고 있는 IB 신장형과 ND(유전형7형)를 하나의 백신으로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달구방 BN<sup>++</sup>(비엔투플러스)를 출시했다. 본 백신은 육추, 산란과 정에서 IB, ND로 인한 폐사와 산란율 저하로 피해를 보는 많은 양계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〈그림 1〉 달구방 BN<sup>++</sup>생백신 백신프로그램

## 달구방 BN<sup>++</sup>생백신 개발과 최적항원조합

「달구방 BN<sup>++</sup>생백신」은 IB 백신주 : K2, ND 백신주 : KBNP-C4152 등 두 가지 백신주를 함유하고 있다.

이 두 가지 백신주는 현재 국내 양계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IB와 ND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효능을 가진 백신주이다. 이미 아는 바와 같이 IB와 ND바이러스는 동일한 세포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증식과정에서 경쟁하게 되어 IB백신과 ND백신을 같이 할 경우 ND백신의 면역형성이 잘 안 되는 문제점(면역간섭현상)을 가지고 있다.

따라서 (주)고려비엔피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IB와 ND면역이 서로 간섭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항원조합비율을 찾아냈으며, 달구방 BN<sup>++</sup> 생백신은 양계산업에 문제를 야기하는 IB, ND에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.

(주)고려비엔피 한장혁 상무는 “최근 양계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질병이 신장형-IB 감염으로 인한 피해이고, 조기감염으로 인해 폐사율 및 산란율에 큰 영향을 키치고 있다”며, “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화장에서부터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「힘백 달구방 비엔 투플러스 생백신」 사용은 분명 양계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